

明清時期 女性文學 資料 譯註와 解題(1)

崔 琇 景*

< 목 차 >

[해설]

1. 明代 男性文人들의 女性文學論
 - 1) 田藝蘅의 『詩女史』 序文
 - 2) 鍾惺의 『名媛詩歸』 序文
 - 3) 葉紹袁의 『午夢堂集』 序文

[해설]

前近代 시기의 중국 여성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통 시기 중국 여성은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억압 받았던 가련하고 수동적인 존재였고 극복의 대상이자 동정 받아야 마땅한 희생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무지와 핍박, 아니면 기껏해야 哀怨과 눈물로 점철되어 왔다고 믿어온 여성의 역사를 '글쓰기'의 역사로 조망해 본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胡文楷의 『歷代婦女著作考』에 의하면 중국 역대 여성 작가 4000여명 중 明清시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3915명이었으며 이 시기에 출간된 여성 詩文集만 하더라도 3000여편이 넘는다.¹⁾ 적어도 일부 계층,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결코 억압되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 여성, 특히 전통 시기의 여성에 대한 몰이해와 超歷史的 동일시 -고전 시대의 여성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총체적

* 誠信女大 韓國女性研究所 研究教授

1) 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1935年, 上海古籍出版社.(1957년 商務印書館본의 중보판임)

으로 억압받아 왔다는 식의-는 마땅히 교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적 영역에서의 여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여성문학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개개의 여성작가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도 있을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여성의 문학 행위 - 독서, 글쓰기, 비평, 詩社 등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이다. 이는 여성들 자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남성문인들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명청 시기 출간된 여성 시집이나 詩選集의 상당수가 남성들에 의한 것이며 여성들 자신에 의한 편집은 상당히 나중에야 활성화된다. 여성 시선집 뿐 아니라 청대 전체를 대표하는 詩選集인 沈德潛의 『明詩別裁集』, 『清詩別裁集』, 張應昌의 『詩選鐸』 등도 비록 가장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여성 작가의 주변적 지위를 상기시켜 주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여성들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남성 지식인들이 이미 여성 글쓰기나 여성 작가에 관련된 일종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근대 시기의 여성 담론이라면 이내 '여성은 재주 없는 것이 덕(女性無才便是德)'이라는 유명한 격언을 떠올리는 현대의 상당수 연구자들에게 있어 명대 중엽 이후 청말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글쓰기 행위나 그 의미를 둘러싸고 상당히 다양한 담론이 교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게 다가올 것이다.

여성의 글과 문학 행위에 대한 이들의 담론을 짚어보는 일은 비단 문학사에 여성 작가의 자리를 채워 넣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들은 여성의 문학 활동을 격려하고 찬양하며, 한쪽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보낸다. 여성의 글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되었고 이는 바로 명청 사회가 갖고 있는 유동성과 불안정성, 남/녀-내/외라는 이상적 경계의 분열, 남성 문인들의 세속에 대한 염오와 진정성에 대한 갈망 그리고 私의 영역으로의 회귀, 여성의 글이 갖고 있는 상업적 잠재성 등등 여러 가지 층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비단 문학사 뿐 아니라 문화사,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깊다. 때문에 여성 작가와 여성의 글을 둘러싸고 형성된 담론들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명청 여성문학 자료 역주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순서로 명 중엽부터 명말까지의 남성 문인들이 여성 문인의 글과 글쓰기 행위를 해석한 세 종류의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명대의 여성 작가, 비평가들의 여성문학론, 청대 남녀 문인들의 여성문학론 자료에 대한 역주 작업을 후속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나 중국 모두 이 자료들에 대한 번역 작업은 시도된 바 없다. 단지 미국에서 중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Woman Writers of Traditional China: An Anthology of poetry and Criticism* (이하 WWTC로 약칭)에서 여성문학과 관련된 주요 작가의 작품, 비평가들의 문장을 영문으로 번역, 해설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유일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

1. 明代 男性文人들의 女性文學論

1) 田藝蘅의 『詩女史』 序文

[解題]

田藝蘅(1567-1620), 字는 子藝, 錢塘人. 9세에 이미 시를 지을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다고 한다. 그는 徽州에서 하급 관직을 지낸 후 은퇴하여 杭州의 西湖 근처에 살

2) Kang-i Sun Chang and Haun Saussy, eds., *Woman Writers of traditional China: An Anthology of poetry and Criticism*, Stanford: Stanford Univ.Press, 1999.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 사전, 시선집, 비평자료집 등 여러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있으며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작가, 비평론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중국 여성문학 연구에 획을 그은 상당히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수십명의 필자가 함께 참여한 탓에 번역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고, 인용문은 물론이고 고유명사조차도 원문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 영문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역을 위주로 하여 그 의미가 원래의 뜻에서 벗어난 것도 적지 않다.

면서 술과 시를 즐기며 살았다. 그는 당시에 시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명의 유명한 문인인 楊慎과 비슷하게 평가되기도 했다.

그 자신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듯이, 『시여사』는 가장 초기의 女性詩總集 중 하나이다. 모두 14卷과 拾遺 2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서문에서 남녀의 역할은 다르지만 문학적 재능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었으며 역사가들이 여성들의 글을 무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무지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반박한다. 그는 뛰어난 여성들의 음성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여성의 글쓰기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그의 노력은 여성시의 기원을 경전에서 찾으며 극구 이를 부각시키는 그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여성문학을 정식으로 문학 전통 속에 진입시켰다는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경전을 들고 나와 여성 글쓰기의 전통을 신성화시키는 이러한 논리는 여성의 글쓰기에 쏟아지는 의심과 질타를 무마시키고 文의 세계에 여성의 자리도 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후세의 다른 여성시집 편찬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이는 사실 전예형 자신만의 생각은 아니다. 宋의 歐陽修도 전예형과 비슷한 의견을 표현했었다. 송대의 여성시인 謝希孟의 <采蘋詩> 서문에서 구양수는 “옛날에 위나라의 장강이나 허목부인의 작품이 공자의 손에 기록되어 국풍에 실리게 되었다. 지금 현세의 작가들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후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다면 사람들은 회맹을 높이 평가할 것이고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이니 내가 또 무엇을 하겠는가?”³⁾라 탄식하였다. 여성들의 글에 대한 무관심을 안타까워하면서 여성의 글이 이미 시경을 편찬한 공자에 의해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여성 글쓰기의 기원을 고대의 경전과 결부시키려는 의도가 이미 발견된다. 전예형의 『시여사』는 구양수의 이러한 논리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전예형이 이 책을 편집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四庫

3) 胡文楷 앞의 책 66쪽 참고.

全書總目提要』는 이 책의 고증이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拾遺記』에 나오는 皇娥歌는 王嘉의 위탁일 뿐이며 王宋의 시도 魏文帝가 위탁한 것이라는 것이다. 전예형이 이런 것까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서적상이 전예형의 이름을 위탁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번역]

멀리는 태고를 회상하고 가깝게는 明朝를 더듬어보니 건곤이 각기 달리 만들어졌고 남녀는 각자의 자리로 찾아갔다. 비록 안과 바깥의 자리가 각기 올바르게 직분에 맡은 바는 다르지만 말과 덕은 (남녀 모두) 함께 닦는 것이니 그러한 재능이 (한쪽 性에만) 편중되거나 (다른 性에는) 갖춰지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다. 남자 중에 글로 뛰어난 자들은 원래 힘써 행하고 남는 힘으로 (문학을) 하는 자가 많았지만 반면 여자 중에 글로써 이름을 날린 이들은 순수하게 (문학) 안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이다.

주대 이래로 대대로 이런 (문학적 재능을 지닌) 남녀들이 없지 않았는데 일찍이 왜 (남녀간 문학적 성취가) 많고 적음이 심하게 차이가 났던가. 이는 정말로 (여성들의 시를) 채집하고 감상하는 노력이 부족해진 뒤부터이다. (이전에는) 궁전과 규방에서 나온 노래들도 시경에 모두 실렸다. 심지어는 통속적인 가사나 음란한 노래들도 공자의 붓에 의해 삭제되지 않았다. 대개 아름답고 추한 것은 저절로 판가름 나는 법인 즉 권계와 징벌이 모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시는) 비단 황제의 教化를 많이 고려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은 여성들의 교화에도 유용하니 그 공이 적지 않다. 어찌 (이것이) 조그마한 도움에 그친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司馬遷과 같은 위대한 역사가마저 (여성의 글을) 기록하지 않았고 그 후에 간간히 몇 가지가 있었으나 대체로 드물었다. 다행스럽게 패관소설과 야사에 약간 관련 대목이 있었고 악부시 유명작가의 시집에는 (여성 작가 작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시는) 종종 위로는 하늘의 조화를 엿보고 아래로는 사물의 이치를 총

판한다. 설령 「二南」에는 비교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시의 표현 기법과 유형인) 六義를 충분히 훌륭하게 발전시킬 만 하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시를 짓는 것은, 뛰어난 여성들이 특히 그것을 잘했다. 현묘한 여성들이 시의 주제를 깊이 탐색하니 남성 시인들은 붓을 놓아버릴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선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성시에 관한) 서적이 드문 것이 안타까웠고 많은 우아하고 훌륭한 작품들이 (시집으로) 엮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나는 숨겨져 있는 여성들의 작품을 찾았고 순수하고 독특한 작품들을 모았다. 사람이 뛰어나다면 반드시 드러내야 하고 말은 숨기고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앞에는 소전을 내세우고 뒤에는 餘篇을 이어 이름하여 詩女史라 하였다. (내가) 수집한 시들을 감히 국풍에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바는, 진실로 관부의 기록들보다도 먼저이다.

다음은 이 책의 편집 원칙이다. 국풍은 여자들 시가 많으나 고증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여자들 시라고 알려진 것 중에) 녹의, 연연, 일월, 종풍, 백주, 재치, 하광 7편이 (작자의) 성이 남아 있으나 모두 패, 용, 위풍에 속한다. 여분, 초충, 행로, 은기뢰, 소성, 강유사, 곡풍, 죽간, 백혜 9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시대는 멀고 사람들은 사라졌으니 정말로 아쉽다. 그 나머지는 송대인들의 억측으로 모두 믿을 수는 없다. 이는 小序와 漢대의 箋이 증거가 된다.

문인들이 (여자인 것처럼) 대신 지은 시는 확연히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木蘭등이 그러하다. 그 가운데 한 두 편은 실었지만 나머지는 신지 않았다. 仙女, 귀신시는 진짜도 물론 많으나 가짜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두 편만 실어 그 유형만 갖췄다.

五帝부터 秦나라까지는 (시대가) 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 한나라부터 육조 시기까지는 (시에 관련된) 전기적 기록은 간략하게, 시는 상세하게 실었다. 당나라부터 오대까지는 전기적 기록은 상세하고 시는 간단하게 실었다. 송나라나 원나라 같이 시의 가르침이 이미 쇠퇴했는데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 또한 규방의 뛰어난 여성일 것이다.

본 왕조는 여성 작가가 원래 많지만 전해오는 작품을 모두 실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은 내가 본 것만 실었다. 나머지는 호기심이 많고 박식한 사람이 수집하여 속편을 만들 것이다. 부는 시의 (변형된) 종류이고 詞는 詞의 종류이므로 모두 수록했다.

여성들은 남성 학자들과는 처지가 다르므로 단편적인 말 몇마디라도 모두 기록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가 이름은 있지만 시 작품은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사적이 있으므로 부가하여 기록하였다.

[원문]

遠稽太古, 近閱明時, 乾坤異成, 男女適敵. 雖內外各正, 職有攸司, 而言德交修, 材無偏廢. 男子之以文著者, 固力行之緒華⁴⁾. 女子之以文鳴者, 誠在中之間秀⁵⁾. 成周而降, 代不乏人, 曾何顯晦⁶⁾之頓殊⁷⁾, 良⁸⁾自采觀之既闕也. 夫宮詞閨詠, 皆得列於葩經⁹⁾. 俚語淫風, 猶不刪於麟筆¹⁰⁾. 蓋美惡自辨, 則勤懲攸¹¹⁾存, 非惟多攷¹²⁾皇猷¹³⁾, 抑亦用裨陰教¹⁴⁾, 其功

- 4) 여기서 緒는 남은 잔여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래서 緒華를 (실천을 먼저 하고 나서 여력이 생겨) 행한 업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行有餘力, 卽以學文'의 발상에서 나온 듯 하다. 즉 남성에게 심미적 감각이 필요한 詩文 능력은 실천적 행위라는 주요 임무에 덧붙여진 부차적인 재능이라는 의미이다.
- 5) 間은 한가로운, 안정적인 등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데 間秀란 남성들처럼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문학적 재능을 지닌 여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 듯 싶다.
- 6) 顯晦에서 顯은 눈에 띄이게 드러난다는 의미로 남성들의 문학 활동과 작품을 말하고 晦는 드러나지 않음, 감춤, 얼마 되지 않음의 의미로 여성들의 문학 활동과 작품을 말한다.
- 7) 頓은 원래 조아리다, 넘어지다, 파괴하다 등의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부사로는 '절대로, 전혀' '동시에' '갑자기' 등의 뜻도 있다. 殊는 차이가 나다, 다르다는 의미인데 전체 내용으로 보아 "(남녀 간의 문학적 지명도가)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듯 하다.
- 8) 이 문장에서 良은 어질다,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사로써 '진실로', '정말로'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 9) 葩經: 詩經을 말한다.
- 10) 麟筆: 원래 이는 史官의 붓을 말한다. 공자가 『春秋』를 쓰고 '哀公十四年春西狩獲麟'으로 글을 맺었기 때문에 그 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특히 공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 11) 攸: 所와 같다.

茂矣, 豈小補哉? 然聖史如司馬子長, 尚寂無所錄, 其後間其一二, 概已疎矣. 所幸稗官野史, 略有條書, 樂府名家多因附見. 往往上窺元化¹⁵⁾, 下總物情. 縱未能媲美於二南, 庶足以揚休¹⁶⁾乎六義. 致使羣英聯句¹⁷⁾, 俊女擅場, 衆妙¹⁸⁾探題, 騷人¹⁹⁾閣筆. 故能膾炙世口, 頡頏士流. 藝衡惜盛籍之未興, 信雅典之有待. 迺探蹟索隱²⁰⁾, 剔粹搜奇. 人有善而必彰, 言無微而不齒. 首標小傳, 尾續餘篇, 名曰詩女史. 蓋詩之所采, 敢竊比於國風, 而行有所遺, 諒先登於策府²¹⁾也. 凡例略曰, 國風雖有婦人女子之詩, 多不可考. 除綠衣燕燕, 日月, 終風, 柏舟, 載馳, 河廣七篇存其姓氏, 然皆屬北邙衛三國. 其汝墳, 草蟲, 行露, 殷其雷, 小星, 江有汜, 谷風, 竹竿, 伯兮九篇, 不知其爲誰何, 世遠人湮, 深可憐惜. 其餘皆宋人憶說, 不可盡據, 小序漢箋可證. 又云, 文人代作詩, 昭然可辨. 若木蘭諸篇是也. 間存一二, 餘不備錄. 仙女鬼女詩, 眞者固多, 僞者亦復不少, 存一二以備一體. 自五帝至秦, 以其邈遠, 故所必錄. 自漢至六朝, 則事略而詩詳, 自唐至五代, 則事詳而詩略. 若夫宋元則詩教既微, 迺能崛起, 斯亦閩中之傑也. 我朝作者固多, 而傳者不可備得. 今偶錄所見, 餘惟好事博覽者成之.

12) 攷: 考의 古字이다.

13) 皇猷: 제왕의 책략이나 敎化를 말한다.

14) 陰敎: 여성에 대한 敎화를 의미한다. 이 말은 『周禮』「天官」의 “以陰禮敎六宮, 以陰禮敎九嬪”이라는 대목에서 나왔다.

15) 여기서 元化는 天理가 행하는 조화의 큰 힘을 말한다.

16) 揚休: 여기서 揚은 陽을 말한다. 양기가 만물을 키운다는 뜻이다. 『禮記』「玉藻」에는 “盛氣顛實揚休”라는 대목이 있는데 孔穎達은 이를 “가득찬 양기가 만물을 기른다(盛陽之氣生養萬物也).”라고 해석하였다.

17) 羣英은 현명하고 뛰어난 여러 선비들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문학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시를 짓는 시의 성원들을 지칭하고 있다. 聯句는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구씩 지어 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18) 衆妙: 妙는 妙를 말한다. 衆妙는 원래 심오하고 현묘한 도를 지칭하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여러 재주 뛰어난 여성 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듯 하다.

19) 騷人: 屈原이나 『楚辭』의 작자를 騷人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시인이나 文人을 지칭하는 단어도 하다.

20) 探蹟索隱: 깊이 감춰진 이치를 탐색한다는 뜻. 『易』「繫辭上」에 “探蹟索隱, 鉤深致遠”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孔穎達 疏에서는 “探이란 엿보고 탐색하여 취하는 것이다. 蹟란 깊고 은밀하여 보기 어려운 것이다. 짐을 쳐보면 깊이 숨겨져 있는 이치를 엿볼 수 있게 되므로 探蹟이란 것이다. 索이란 찾는 것이고 隱은 감춰져 있는 것이다(探蹟窺深求取, 蹟謂幽深難見, 卜筮則能窺探幽昧之理, 索謂求索, 隱謂隱藏).”이라 풀이하고 있다.

21) 策府: 제왕이 책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當爲續史。賦者詩之流，調者，詞之流，皆得入錄。婦女與士人不同，片言隻字，皆所當紀。其有名無詩者，亦得因事附見²²⁾。

(胡文楷, 876쪽)

2) 鍾惺의 『名媛詩歸』 序文

[해제]

鍾惺(1574-1624), 자는 伯敬, 景陵人. 1610년 진사가 되어 남경 등지에서 관리를 지낸다. 유명한 문인이고 애서가이자 등산가였던 그는 여러 권의 문집을 남기고 만년에는 禪宗에 심취하였다. 그의 『古詩歸』와 『唐詩歸』는 당시 매우 널리 알려졌다. 『명원시귀』도 그의 다른 시집처럼 격식, 관례, 유포에 억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시의 본질임을 주장하기 위해 편집되었다. 이 시집의 출판 연도는 확실치 않으나 1600년경으로 추정한다. 1, 2권은 古逸과 漢, 3-7권은 魏晉六朝, 8권은 迴文, 9-15권은 唐, 16, 17권은 蜀, 18-22권은 宋, 23, 24권은 元, 25-36권은 明의 작가를 수록하였다.

전예형이 여성시의 주변성과 여성의 열등함을 부인했다면 종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시가 남성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여성이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남성이 따라오지 못할 뛰어난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란 '性靈'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종성은 고인들의 시 스타일이나 전고를 모방하는 당시의 글쓰기 형태를 대단히 불만스러워했다. 그는 때문에 여성시의 淸淨함 속에서 한계에 부딪힌 남성문학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 남성문인의 글쓰기 활동이 시험 준비나 관직활동에 사용되기 위한 기능적 목적에 부속되어 시 본연의 자연스러움을 상실했으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22) 附見: 正本에 보이는 부록이나 正傳에 보이는 附傳을 지칭한다.

아무런 구속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소외되고 외부와 격리되어 있었던 여성들의 치명적인 한계는 그에 의하면 오히려 진실한 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점으로 변한다. 현실 세계를 경영하는 남성들보다 상상 속에서 세상을 주유하는 여성 시인들은 훨씬 순수하다. 때문에 시경과 같은 고대 시의 정신을 더 잘 계승할 수 있고 남성 시인들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이다. 종성의 이러한 주장은, 관직진출을 향한 경쟁 구도 속에서 좌절을 맛보거나 팔고문의 경직성에 혐오감을 갖고 있던 문인 남성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샀을 법 하다.²³⁾ 하지만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결국 “여성들의 글은 타고난 특성 때문에 남성과 다르며,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어찌보면 철저하게 남녀의 본질적인 성별 차이에 기반한 글쓰기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성과 여성의 글을 순수, 자연적인 것에 귀결시키고 남성의 그것을 인공적이고 기교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남녀 성별에 따른 전형적인 이분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역사』와 마찬가지로 종성이 이 책의 편집자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내용에 진짜가 아닌 것이 섞여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하였다. 王士禎도 『居易錄』에서 이 책은 서적상들이 가탁한 것이라고 하였다. 책머리의 識語에는 名媛詩가 아직 간행되지 못하였으니 정밀하게 인쇄되고 자세하게 수정된 秘本을 구한다는 등의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종성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님이 분명하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孫康誼는 女性詩選集의 전통이 막 시작한 단계에서 편집상의 불철저함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일부 서적상들이 다른 작품을 끼워넣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시집은 종성의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⁵⁾

23) 康正果는 당시 문인들의 이른바 ‘才子’ 표방 현상을 설명하면서 과거 시험의 관문은 너무나 협소했고 개인의 우월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과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詩文의 재능을 드러내는 풍조가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팔고문에 대한 혐오감도 이와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 (康正果, 「泛文和泛情-陳文述의 詩文活動及其他」, (張宏生 編 『明清文學與性別研究』, 江蘇古籍出版社, 2002)

24) 호문해, 앞의 책 884쪽 참고.

[번역]

시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음성이지 엉터리 규율이나 모방으로 공교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시경의 시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치며 애정시의 비조로 노래불린 이래, 그 언어가 노래 부를 만하고 읊을 만하게 된 요체는 온유돈후함에 있었을 뿐이다. 어찌 (시경에) 시의 法律같은 것이 있었겠는가?

지금 시를 짓는 자들은 종이를 만지기도 전에 먼저 (시의)法과 律을 말한다. 또한 누구는 누구 시의 풍격을 배우고 누구는 어느 유포를 모방한 것인지 이야기한다. 고로 요즘 사람들과 요즘 선비들의 시는 흉중에 우선 曹植과 劉楨, 溫庭筠과 李商隱이 들어 있는 후에 이를 모방하여 지은 것이다.(그러나) 고금의 名媛들은 정에서 발하고 본성에 기반을 두었으니 모방하여 시를 지은 적이 없었으며 무슨 차별도 모르고 南皮나 西崑과 같은 체제도 없었으나 그들의 슬픔과 우아함이 저절로 흘렀던 것이다. 지금의 여인네들은 처음에는 한 여자에 불과하여 工拙을 모르고 깊은 우수도 모르고 머리에는 예외 없이 감색수건(紺幕)을 두르고 있을 따름이었다. 머리에 비녀 장식 늘어뜨릴 시기가 되면 (그녀는) 촉촉하고 말간 얼굴을 드러낸다. 누렇게 시들었다가 다시 녹색으로 바뀌듯, 세상만사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녀가) 기쁠 때에는 얼음을 돌이켜서 꽃을 만들고 우울할 때에는 구름을 눈으로 만들 수 있다. 푸른 물에서 목욕하듯 깨끗하고, 붉은 꽃 속에서 꿈꾸듯이 어슴프레한데, 갑자기 홀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통하여 온갖 모습을 꿰뚫는다. 풍부하면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후일의 시를 잘 짓는 이들은 이전에는 모두 시에 능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무릇 시의 도란 것도 다양한 것이지만 나는 (이 도를) 淸에서 취하지 않을 수 없다. 友夏의 『簡遠堂集』에 이르기를 “시란 淸物이다. 시의 體는 한가로움을 좋아하고 수고로움에는 적당치 않다. 그 근거지는 청정함을 좋아하여 더럽지 않다. 그 경계는 고립되는 것을 취하여 복잡하게 섞이지 않는다. 그러한 이치는 본래 여성에게서 뛰어난 것이다.

25) Widmer and Chang, eds., *In Writing Women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7, 152쪽

대개 여자들은 마차와 수레를 끌고 (일하러) 다니는 의무를 지지 않고 녹색의 이끼와 아름다운 나무에 둘러싸인 채 노끈이나 엮으며 향을 피우며 조용하고 우아하게 지낸다. 남자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에 익숙해진다. (예를 들어) 虞世基가 십군지를 편찬할 때 그는 (먼저 가서) 산천을 묘사하고서야 산수도(山圖)를 그렸다. (먼저 가서) 郡國을 묘사하고서야 군읍도를 그렸다. (먼저 가서) 城을 묘사하고서야 公館圖를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렇지 아니다. 금침으로 마을을 만들고 꿈 속에서 關塞를 지킨다. 이는 오로지 순수하기 때문이다. 순수하면 지혜로워진다. (자수로 이름을 날린) 盧眉娘은 열네살에 비단 한 자에 법화경을 모두 수놓았다. 글자는 낱알만했고 점과 선은 분명했다. 또 실 한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나누어 손바닥 위에서) 꼬아서 마차 덮개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는 十洲, 三島, 궁궐과 누각, 용과 기린의 문양이 모두 있었다.

오호라! 남자들의 시적 기교라는 것은 정말로 여자들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 시부라는 것이 어찌 단지 (시구의) 숫자나 세는 그런 것이겠는가? 그러나 이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劉勰이 한 말이다. 유희이 말하기를 “사언시가 (시의) 正宗이고 우아함과 부드러운 기본 성격으로 한다. 오언시는 (나중에 발전한) 유행가이고,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시의 격률과 규범에 공을 들이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남긴 것들만 구걸한다. 淸麗라는 시의 이치는, 관리들은 잃어버리고 울긋불긋 비단 옷 입은 여자들이 오히려 얻게 되었다. 오호라! 남의 것을 무조건 따라하다 자기 것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행태는 요즘 시를 배우는 자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병이다. (그들은) 자연스러움에 근접함을 바탕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예쁜 것을 취하려다 오히려 볼품없이 되고 만다.

고로 李白이 맨발의 소녀에게서 시정을 발했던 것은 모든 인공적 치장을 제거한 천연스러운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시집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누구는 (여성들의 시가) 음란할 수 있다 하고 누구는 경전에서 다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위장강과 반첩여가 아름다운 시어가 가득찬 시를 지은 것을 보지 않았던가? 단

지 (여성 작가들의 시는) 문헌에 기재되지 않았고 서고에 보관되지 않아 당시 풍속을 살피는 신하에 의해서도 알려지지 않았고 속요나 민담에서도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을 책으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오직 한 두명의 뜻이 있는 선비들만이 가끔 더불어 (여성들의 시에 관해) 토론하였다. 이에 인쇄공에게 명하여 이를 오래 남기고자 한다.

[원문]

詩也者, 自然之聲也, 非假法律模倣而工者也. 三百篇自登山涉阻, 唱爲懷人²⁶⁾之祖, 其言可歌可詠, 要以不失溫柔敦厚而已, 安有所謂法律哉! 今之爲詩者, 未就蠻牋²⁷⁾, 先言法律, 且曰某人學某格, 某書習某派, 故夫今人今土之詩, 胸中先有曹劉溫李, 而後擬爲之者也. 若夫古今名媛, 則發乎情, 根乎性, 未嘗擬作, 亦不知派, 無南皮西崑, 而自流其悲雅者也. 今夫婦人始一女子耳, 不知巧拙, 不識幽憂, 頭施紺幕以無非耳. 及至釵垂籠篸²⁸⁾, 露濕輕容²⁹⁾, 回黃轉綠, 世事不無反覆, 而于時喜則反冰爲花, 于時悶則鬱雲爲雪, 清如浴碧, 慘³⁰⁾若夢紅, 忽而孤遼³¹⁾一線, 通串百端, 紛浴箭蓼, 猗猗³²⁾, 所自來矣. 故凡後日之

- 26) 懷人: "사람을 그리워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지만 시 속에서는 특히 멀리 떠난 사람을 생각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詩經』「周南」〈卷耳〉에는 "아아, (길 떠난) 그 사람을 생각하니, 그것(땅주리)를 길에다 내던지네(嗟我懷人, 置彼周行)."라는 구절이 있다. 즉 <권이>편과 같은 애정시를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듯 하다.
- 27) 蠻牋: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편지지의 일종을 말한다.
- 28) 籠篸: 籠은 대나무 상자, 篸은 채를 말하지만 籠篸은 축 늘어진 모양을 형용한다.
- 29) 輕容에는 '색깔이)연하다'는 의미가 있어 얼굴의 색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WWTC에는 이 구절을 "Her face is soft and moist."라 해석했으나 輕으로 질감을 나타내는 용례가 없으므로 낮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 30) 慘은 원래 비통하다, 근심하다, 아프다, 혹독하다 등의 의미이지만 겹다, 어둡다는 뜻의 黯과 통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唐 蔣凝의 「望思台賦」에 '烟昏日慘'이라는 구절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여기서는 앞 구절의 淸과 대비되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흐릿하다'로 해석하였다.
- 31) 孤遼: 遼는 貌와도 통하고 孤貌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의지 할 곳 없는'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의미로 보기 보다는 글자 그대로 '고립되고 멀리 흩어져 있는'으로 해석해야 내용에 보다 부합한다. 이는 여성의 정신이나 감정의 상황을 뜻하는 듯 하다.
- 32) 이 구절은 司馬相如의 「上林賦」에서 가져왔다. 그 원문은 "紛浴箭蓼, 猗猗從風"이다. 紛浴은 무성한 모양, 箭蓼은 높고 긴 모양을 형용한다. 猗猗는 아름답고 연약하여 밀으로 처진 모습을 말한

工詩者, 皆前日之不能工詩者也. 夫詩之道, 亦多端矣, 而吾必取于清. 向嘗序友夏簡遠堂集曰, 詩, 清物也, 其體好逸, 勞則否. 其地喜淨, 穢則否, 其境取幽, 雜則否. 然之數者, 本有克勝³³⁾女子者也. 蓋女子不習軸僕輿馬之務, 緝苔芳樹, 養絙薰香, 與爲恬雅. 男子猶籍四方之遊, 親知四方, 知虞世基撰十郡志³⁴⁾, 敘山川, 始有山水圖. 敘郡國, 始有郡邑圖. 敘城隍, 始有公館圖. 而婦人不爾也. 衾枕間有鄉縣, 夢魂間有關塞, 惟清故也. 清則慧, 盧眉娘十四能于尺絹繡靈寶經, 字如粟粒, 點畫分明, 又以絲一洵結爲金蓋, 中有十洲三島, 台殿鳳麟之狀³⁵⁾ 嗟乎! 男子之巧, 洵不及婦人矣! 其于詩賦, 又豈數數也哉? 然此非予之言也, 劉彥和³⁶⁾之言也. 彥和云, 四言正體, 雅潤爲本. 五言流調, 清麗居宗. 今人工于格套, 巧人殘膏, 清麗一道, 頽弁³⁷⁾失之. 纈衣反得之. 嗚呼! 梅岑水月妝, 肯學邯鄲步³⁸⁾, 蓋病近日之學詩者, 不肯質近自然, 而取妍反拙. 故青蓮乃一發于素足之女, 爲其天然絕去雕蝕³⁹⁾. 則夫名媛之集, 不有裨哉? 或曰坊于淫, 或不盡出於典則. 不見衛莊姜, 班婕妤⁴⁰⁾, 豈不丹

다. 蟲獸은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이 구절은 여성의 풍부하고 다양한 정신 세계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克勝: 잘하다. 뛰어나다는 뜻.

34) 虞世基(?-618)는隋의 문학가, 정치가이며 서예가로도 유명한. 字 茂世 『隋書』「列傳」제32에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十郡志』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내용으로 보아 지리에 관한 내용인 듯 하다.

35) 盧眉娘은 唐의 유명한 자수가이다. 본문의 내용은 蘇頲의 『杜陽雜編』에서 인용한 것이다. 靈寶經이란 法華經을 말한다. 以絲一洵은 以絲一縷의 오키로 봐야 한다. 金蓋는 『杜陽雜編』에서는 飛蓋(수레덮개)라 되어 있다. 十洲는 신선이 산다는 섬 열 곳이고 三島역시 蓬萊등 신선이 산다는 세 섬이다.

36) 劉彥和는 『문심조롱』의 저자인 梁의 문학비평가 劉勰(465-521)을 말한다. “四言正體, 雅潤爲本. 五言流調, 清麗居宗.”이란 「明詩」에 나오는 구절이다.

37) 頽弁: 관리들이 쓰는 관을 의미한다.

38) 梅岑은 원래 浙江 普陀山을 의미하고 水月妝의 의미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바로 뒷 구에 나오는 邯鄲之步 고사 인용으로 짐작하건대 남의 것을 무조건 모방하고 추종하는 병폐를 지적한 듯 싶다.

39) 青蓮이란 四川에 있는 李白의 출생지로 알려진 곳이다. 여기서는 이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素足이란 이백의 시 「洗脚亭」에서 “나무꾼 소녀 맨발을 씻으니 행인이 짐을 내려놓고 쉬는구나(樵女洗素足 行人歇金裝)”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素足이란 꾸미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天然絕去雕蝕”이란 이백의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游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다.

40) 위장강은 衛莊公의 부인이며 흔히 莊姜이라고 불린다. 『시경』의 衛風 중 “碩人”이라는 시가 그녀를 찬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녀는 시경에 있는 몇 편의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

華⁴¹)而靡曼乎? 獨是不徵于文獻, 不載于名山⁴²), 無輜車觀風⁴³)之赴告, 謠俗聞見之傳信, 其哀輯爲難, 獨一二有心之士, 偶與之論述, 爰命梓人永之 (胡文楷, 883-884쪽)

3) 葉紹袁의 『午夢堂集』 序文

[해제]

葉紹袁(1589-1648), 자 仲韶, 호 栗庵, 天寥道人이라고도 한다. 江蘇 吳江人이다. 시와 산문에 모두 뛰어났다. 처음에는 이름이 寶生이었는데, 世交가 있던 袁紳의 집에 양자로 가서 소원이라 개명한다. 1621년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1625년에는 진사가 된다. 북경의 국자감 조교, 후에는 남경 武學教授가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벼슬을 지낸다. 나중에는 정무에 염증을 느껴 모친 馮씨가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섬씨 가문은 원래 부유하였고 그들이 사는 집은 연못과 정자, 대나무 등의 경치로도 유명했다. 나중에는 그가 관직을 그만둔 데다 토지에서조차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 살림이 어려워진다. 나중에 아내와 딸들이 세상을 뜨고 전란을 겪으며 가난과 병고에 시달린다. 전답을 팔고 노비를 풀어준 이후에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순치 5년에 60세로 사망한다. 그의 아내 沈宜修와 딸 등 일가가 모두 문학으로 유명하다. 『오몽당집』은 그의 아내가 죽은 다음해인 1936년에 자신과 가족들의 문집을 모아서 함께 펴낸 일종의 가족 문집이다.⁴⁴⁾

저 중국 최초의 여성시인이라는 칭호가 붙기도 한다. 반첩여는 西漢 시기의 여성 작가로 반고의 고모할머니가 된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成帝시기에 입궁하여 婕妤가 되었다. 「自悼賦」, 「鳩素賦」, 「怨歌行」이 세 편의 작품을 남겼다.

- 41) 丹華 붉은 꽃이라는 뜻이다. 한대 蔡邕이 「琴賦」에서 '丹華輝輝'이라는 구절을 사용했다. 여기서 시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말로 사용되었다.
- 42) 名山: 후세에 전할만한 불후의 저서들을 보관해 놓는 장소를 이른다. 『사기』의 「太史公自序」에 "藏之名山, 副在京師"라는 구절이 있는데 司馬貞은 이를 "정본은 서고에 보관하고 副本은 서울에 놔둔다는 말(言正本藏之書府, 副本留京師也)."라 해석하였다.
- 43) 輜車는 임금의 사신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의미한다. 觀風은 풍속을 살핀다는 의미이다.
- 44) 섬소원의 가족 상황,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원동의 「明末 葉紹袁, 午夢堂集, 그리고 記憶」(중

이 책은 청대에도 이미 여러 번 간행된 바 있다.

섭소원은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성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는 德과 才만을 앞세우고 色을 도외시하던 기존의 여성 담론을 비판하며 이 세가지는 어느 것도 결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여성론은 바로 明末 강남 지방의 사대부들에게 일반화되었고, 청초 재자가인소설의 대유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才, 德, 色 일체론의 전형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견해에는 색다른 점이 적지 않다. 섭소원은 재, 덕, 색 가운데 상대적으로 色을 강조하고 才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사대부들로부터 비판받던 사랑의 순교자 笏奉倩을 옹호한다. 서문의 후반부에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대목에서, 자신이 아내를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손봉천과 마찬가지로 色에도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여성의 시적 능력에 대한 당시 남성 문인들의 기대와 환상을 드러냈던 종성에 비해 그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才를 지닌 여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才가 德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전예형, 종성과 같이 『시경』의 예를 들었고 여성들의 시 짓기가 여성의 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수궁한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여성의 才란 결국 양날의 칼이었다. 즉 才는 ‘여성다움’을 구성하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양립 불가능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才가 아내와 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하다. 섭소원 부부가 그랬듯이, 여성의 才란 남성과 정신적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 이는 여성 자신의 내부(자아)로 몰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유가적 질서 체계에서 보면 가족 관계의 층위에서 다소나마 유리된 여성들의 삶은 사실 궤도 이탈이라 할 만했고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경탄과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꼈던 것이다. 才와 여성의 ‘팔자’를 연결짓는 섭소원의 논리 역시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번역]

남자에게는 성취해야 할 세 가지 불멸의 것이 있으니, 덕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말을 세우는 것이다. 여성들 역시 세 가지가 있으니 德, 才, 그리고 色이다. (이것들은) 긴 시간동안 혁혁하게 빛나왔다. 그러나 ‘하늘의 숙녀’니 ‘기수’니 ‘석인’이니 하는 시들이 단지 요염한 아름다움만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소에서도 이렇게 읊었다. “아름다운 얼굴과 우아한 자세, 洞房을 휘감고, 초승달 같은 눈썹에 윤기나는 눈동자가 빛을 발하네.” 마치 부인들이 일부러 아름다움을 표방하고 미모를 경쟁하는 듯 하다. (이들은) 미색이 특히 부각되고 재주와 덕으로는 모두 (이들의) 우열을 따지지는 않았다.

(『세설신어』에 나오는 笄奉倩 같은 사람은 (아내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정신을 손상시켰고 지나치게 편중되어서 후세의 유학자들은 또 순봉천의 편중된 미혹을 지적하려 하고 그의 음탕함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이 때문에 色은 제쳐놓고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요요한 도화’니 ‘무궁화꽃 같은 얼굴’식의 내용을 담은 노래들은 사대부들이 심히 꺼리게 된 듯 하다. 그래서 스스로 궁전의 미인이 아니라면 다른 여자들과 별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양귀비가)소양의 화청에서 머무르며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온 즉 서시도 무색하고 정단도 압도할정도로 아름다웠다. 만약 李延年의 노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규방 속 여성을 추천하고 칭찬했다면, (여성들은) 얼굴을 붉히고 숨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스스로 용모를 가꾸면서도 이를 말하기 꺼리고 (재, 덕, 색 가운데) 다리가 셋인 술 다리 하나를 분질러 버리고 재주와 덕성 두 가지만이 천하에 존중받고 있다.

이미 천하에는 두 가지가 존경을 받고 있으나, 지금 才를 판단하는 기준도 色과 다르지 않고 才에 대해 널리 말하는 경우도 드문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 대개 부귀한 여성들은 각종 비단 옷에 진주와 비취로 휘감고 통소, 생황 불며 춤을 추기도 하지만 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하였다. 더 아래 신분의 여성들은 황갈색 비단에 수놓고 바느질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향기로운 밥에 맛있는 국을 끓여 친히 제사를 모셔야 한다. 서책은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붉은 꽃의 향기 속에서

글을 읽고, 하얀 분가루 속에 주석을 달아야 하였으니 재주라는 것에 대해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才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色은 입에 올리기가 꺼려하면서도, 사대부들은 그래도 (이 두 가지에) 완전히 침묵을 지키려 하지는 않았으니, 그들 가정의 부인네와 딸들은 (색과 재)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德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실에는 (여성들의) 역사가 전해졌고 내전에는 붉은 붓(으로 쓴 여성들의) 비문이 늘어서 있다. 湘東의 管道昇 같은 이들은 다 기록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만약 시비를 가리고 정수를 뽑아내는 그런 (여성 시선집) 종류는 저렇게 찾아보기 힘든데 미녀들의 글을 모은 (개인) 문집만 이렇게 번성한다면, 여성들의 글은 신뢰하기 어렵게 되고 규방의 규범도 쉽게 전복될 것이다. 대개 그 이름이 더욱 유명해질수록 수식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집안이 원래 부유하다면 (그 집안 여성들은) 반드시 (葛覃의) “옷은 무엇을 빨아놓고 부모님을 뵈러갈꼬?”라는 노래를 읊어댈 것이며, 타고난 용모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쁘다면 진작에 (斯干에 나오는)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여자의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는 노래를 썼을 것이다. (시경 속의) 采芣 시를 즐긴다면 바로 (여성의 본분을 다하여) 제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할 것이고 (시경의) ‘樛木’시로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바로 “당굴이 칭칭 감듯 복을 받는” 것을 본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여성들이) 힘껏 다른 사람을 돕고 아름다운 덕행을 닦는 종류에 대해 말하자면, 책을 놓는 반침이나 보자기를 짜거나 수를 놓는 것, 공경하고 효를 밝히는 것, 제사 준비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남편을 사랑하고 도우며 서로 의종게 지내는 것, 위대한 후사를 낳아 대를 잇는 것, 쉼을 칭찬하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지적하는 일 역시 많았다고 한다.

일찍이 어떤 이들은 여성 시인들의 선함과 신중함을 남자가 할 일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헐뜯기도 하고, 이들 작품의 아름답고 훌륭한 점을 뱀을 품은 듯한 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내가)보고 들을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다가 틈이 나면 증거 없어 (여성들의 재능을) 불신당하는 것에 대해 몇 번이나 탄식을

했던가. 그런즉 (여성의)덕의 연유를 고찰하는 일은 재능의 실체를 따지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고로 공자께서 시경을 편집하실 때 여자들이 지은 것에 대해서는, ‘采芣’, ‘采芣’같은 (여성들이 일하며 지은)시, ‘雄雉’, ‘泉水’같은 (떠나간 사람이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 狡童이나 狂且같은 (남녀상열지사(남녀상열지사에 관한)시 할 것 없이 책에 싣고 없애버리지 않으셨다. (여성들의) 재능은 얻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면 (공자께서) 그리 하셨을 것인가?

비록 그렇지만, (여성들의) 재능이라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귀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틈이 날 때 역사를 훑으며 옛날(의 여성들)을 고찰하였는데 궁궐의 여성들을 모두 열거하지는 않았다. 班昭, 卓文君, 柳令嫺, 徐淑과 같은 여성들은 왜 천 여년간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이들이 쓴 글은 기록되어 전해지지 못하고 부부 사이는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서 모두 상처를 겪고 일찍 과부가 되었는가. 鮑令暉는 미모를 지녔지만 훌륭한 짝을 만나지 못했다. 蘇蕙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怨婦가 되고 말았다. 潘岳이 죽은 아내를 추모하는 감회는 오랜 생각 뒤에 나온 글이었다. 崑卿은 달빛 비치는 밤에 공연히 노래 가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즉 (여성들은) 빼어나게 악기를 연주하고, (빨래용)돌맹이를 두들기고 베틀 북을 옮긴다. 비단에 짜 넣은 글자에 마음이 혼란해지고 은으로 쓴 글씨에 눈이 부시다. 그래도 안락하고 영화롭게 북을 누리며 편안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었다. 왜 꼭 필상에 벼루 상자, 대모로 된 붓 자루에 꽃무늬 편지지가 필요한 것인가. (이는) 도리어 막막한 어린아이를 거꾸로 들고 놀리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다. 규방의 재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내 아내 沈宜修는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하여서 (시경의)風雅를 깊이 연구하였다. 여러 딸들과 꽃과 풀을 제재로 시를 짓고 달과 구름을 노래하였다. 한때는 함께 감상하며 모두 칭찬하고 즐겁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장녀 환환은 스물을 갓 넘기자 우울을 이기지 못해 죽고 말았다. 막내딸은 막 열여섯 무렵이 되자 죽어 신선이 되었다. 지금 아내도 어머니로서의 사랑으로 (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

다가 짧은 생각으로 긴 길을 떠나고 말았다. (마치)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고 아름다운 구름이 멀리 떠나버린 것과 같이. (그들이) 남긴 글은 상자 속에 있고 유물은 부질없이 슬프기만 하도다. 주옥도 빛을 잃고 구슬도 색이 바랬도다. 심하구나! 재주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내와 두 딸들은 꼭 재녀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재주가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조물주가 재앙을 내리고 하늘이 시기를 했던 것인가.

그저 장식없는 올림머리라 해도 梁鴻의 아내와 같았고, 봉두난발에 예를 갖추지 못해도 王霸의 아내와 같다. 어찌 (우리는) 함께 은거생활을 즐기며 백발이 되도록 함께 지내지 못하고 거문고는 끊어지고 소리는 사라졌으며 텅소는 부서지고 거울은 깨져버렸다. 삶의 불행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아아, 슬프도다.

(아내의) 덕이 哲人만은 못했더라도 아마 어진 여성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자색이 중간밖에는 안되었지만 나는 감히 (그녀가) 아름다운 배필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謝道蘊의 주렴 앞에 쌓인 눈은 사라지고, 유부인의 상자 속에 있는 산초는 썩어버렸다. 中郎은 끊어진 줄을 다시 이을 수가 없었고, 桓伊의 피리도 정말로 어찌할 수가 없네. 孫楚의 사랑의 글은 부질없이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江淹이 꿈속에서 받은 재주는 공연히 아름다운 아내를 위해 눈물 흘리는데 쓰였도다. 너무나 슬프구나! 송정연간 병자년 3월에 섭소원 쓰다.

[원문]

丈夫有三不朽，立德立功立言，而婦人亦有三焉，德也，才與色也，幾昭昭乎⁴⁵⁾千古矣。然倪天淑女，河淇碩人⁴⁶⁾，不啻於色艷稱之。楚騷亦曰‘娉容修態，桓洞房，蛾眉曼睩，目騰光’，

45) 鼎: 빛나다, 성대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6) 倪天淑女, 河淇碩人: 倪天은 『詩經』 「大雅」의 ‘大明’편의 “큰 나라에 공주가 있으니, 마치 하늘의 선녀같구나(大邦有了, 倪天之妹)”라는 구절에서 따온 듯 하다. 원래 文王의 약혼녀 太姒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 명칭이 황후나 공주를 지칭하게 된다. 河淇란 『詩經』 「鄘風」의 ‘桑中’편의 “나를 淇水로 보내주세요(送我乎淇之上矣)”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인과 밀회하려는 세 명의 여성들을 노래한 시이다. 반면 碩人은 아름답고 고귀한 衛莊姜의 풍모를 찬양하고 있다.

似乎婦人故當標妍競媿，以色特著焉者，才德俱非所軒輊⁴⁷⁾爾。及乎奉倩⁴⁸⁾傷神，矯情觴重⁴⁹⁾，後世儒者，又必欲摘其偏繆，訾其淫靡，故爲置色弗諱，而桃穠莠英⁵⁰⁾之遺音，若深諱於士大夫之口，自非椒庭⁵¹⁾玉顏，不殊衆也。昭陽，華清⁵²⁾，留裙賜浴而外，卽麗奪夷光，姣傾鄭旦⁵³⁾，倘有延年之歌⁵⁴⁾，薦譽閨閣，發頰匿矣。故自治容諱談，折鼎一足，而才與德乃兩尊於天下。夫既兩尊於天下，然衡才於今，亦猶色焉，寥寥罕所揚說，則又何也？蓋貴富者，綺紈⁵⁵⁾珠翠，簫笙歌舞，其於縹緗⁵⁶⁾，弗嫻習也。下者，刺繡拈針，流黃織綺⁵⁷⁾，甚速精

- 47) 軒輊: 수레 앞은 높고 뒤는 낮은 것이 軒이고, 앞은 낮고 뒤는 높은 것이 輊이다. 이것에서 인신되어 고저, 경중, 우열, 나아가서는 褒貶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 48) 『世說新語』35권에 나오는 荀奉倩의 고사를 일컫는다. 순봉천은 아내와 금실이 매우 좋았다. 거울에 아내가 병으로 열이 나자 이에 정원으로 나가 스스로 (몸을) 차갑게 하여 몸으로 아내를 식혀 주었다고 한다. 아내가 죽자 순봉천은 얼마 있지 않아 역시 죽어서 후세에 비웃음을 샀다. 순봉천은 “여인네의 덕은 찬양하기에 부족하고 마땅히 색이 우선이다.”라 했다. 배령은 이를 듣고 말했다. “이는 (그가) 감정이 격할 때 이야기이고 덕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바라건대 후세인들은 그의 말에 속지 말지어다(荀奉倩與婦至篤，冬月大病熱，乃出中庭自取冷，還以身熨之。婦亡，奉倩後少時亦卒，以是獲譏于世。奉倩曰“婦人德不足稱，當以色爲主。”裴冷聞之曰“此乃是興到之事，非盛德言，冀後人未昧此言。”)”
- 49) 觴重은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50) 桃穠莠英: 桃穠은 『시경』「周南」의 ‘桃夭’를 의미하는 듯 하다. 이 시는 아름다운 복숭아 꽃처럼 아름다운 신부의 행복을 축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莠英은 『鄭風』중 ‘有女同車’에 나오는 ‘顏如舜英’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듯 하다. 이 시는 남녀가 함께 수레를 타고 놀러 나온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의 桃穠莠英이란 남녀 간의 쾌락이나 사랑을 담은 주제를 비유하고 있다.
- 51) 椒庭은 궁전 안을 지칭한다.
- 52) 昭陽은 양귀비가 살았다는 곳의 지명이고 華清은 양귀비가 목욕했다는 연못이다.
- 53) 夷光, 鄭旦: 夷光은 전설적인 미녀 西施를 말하고 鄭旦은 서시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미인으로 서시와 함께 뭍나라로 보내졌다고 전한다.
- 54) 李延年是 漢武帝의寵妃였던 李夫人의 오빠이다. 그가 무제 앞에서 “北方有佳人，絕世而獨立”으로 시작되는 노래를 불러 한무제의 마음을 들뜨게 한 후 자신의 누이동생을 한무제에게 데려왔다는 유명한 일화를 빗대고 있다. 즉 이연년이 한 것처럼 누가 미모를 칭찬한다면 여성들은 분명히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성이 갖춰야 할 자질 중에서 색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일종의 금기였음을 의미한다.
- 55) 綺紈은 무늬 있는 비단과 흰 비단을 각각 지칭하는데 화려한 옷감이나 옷을 칭할 때도 사용한다.
- 56) 縹는 담청색, 緗은 연황색을 말한다. 옛날에는 대부분 이런 색깔의 비단으로 책 보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縹緗은 책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 57) 流黃織綺: 流黃은 황갈색을 의미한다. 織綺은 수가 놓아져 있거나 그림이 그려진 채색 비단을 말한다.

飴瀟瀟⁸⁾, 躬親御之, 其於躑躅⁵⁹⁾, 弗暇識也. 紅香視草⁶⁰⁾, 素粉題箋, 才亦豈易言哉! 才既不易言, 而色又欲諱於言, 士大夫又不肯泯泯, 其家之婦人女子, 則不得不舉二者以盡歸之於德, 於是聞傳青史, 壺列形碑⁶¹⁾, 湘東三管⁶²⁾, 靡可勝書矣. 是非標腹瀟瀟, 閨寂如彼, 萃芳集嫩, 若斯繁會⁶³⁾也, 則煒管難眞, 而內則易贗也. 蓋其名彌茂, 斯其飾彌工. 家本應華⁶⁴⁾, 必陳香澗之誦⁶⁵⁾, 質弛脂黛, 早著無非之儀⁶⁶⁾. 樂其采繁, 卽是祈童之被⁶⁷⁾. 繩以樛木, 如見葛藟之繁⁶⁸⁾. 泊⁶⁹⁾於勤襄昭美, 杼紋繁裘⁷⁰⁾, 敬共⁷¹⁾明孝, 調旨粉榆⁷²⁾, 愛相夫子,

- 58) 糖은 옛날 제사 때 올리는 기장, 보리, 콩 등의 곡식을 말한다. 飴은 음식 냄새를 의미한다. 瀟瀟는 쌀뜨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국을 끓이면 맛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한다는 의미도 있다.
- 59) 躑은 두루마리나 책 끝면에 대는 천을 말하며 躑은 두루마리로 된 책의 축을 말한다. 이는 서책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 듯 하다.
- 60) 紅香은 붉고 향기로움의 의미이다. 視草는 원래 신하들이 성지를 받들어 고치거나 수정한 공문을 이른다. 하지만 뒤의 구와 맞구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목'의 구조로 봐서 '글이나 원고를 보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듯 하다.
- 61) 形碑에서 形이란 『시경』 「邶風」 「靜女」에 나오는 “貽我彤管, 彤管有煒”에서 유래한다. 彤管의 의미를 鄭玄은 “붓의 자루가 붉은 것(筆赤管)”이라고 해석하였다. 옛날에는 女史들이 붉은 붓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글쓰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形碑란 여성 역사가들이 여자들에 관한 일을 기록한 비문을 의미한다.
- 62) 三管은 元代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인 管道昇와 管道昇 자매를 말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 두 명을 제외한 다른 한 명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
- 63) 繁會는 서로 다른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어울린다는 의미와 변화하다, 번성하다는 의미가 있다.
- 64) 應는 원래는 제사에 사용되는 큰 생선토막을 의미하는데 풍요롭다, 기름지다는 의미도 있다. 應華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호화로움을 말하는 듯 하다.
- 65) 아마 『詩經』 「周南」의 「葛覃」 중 “어느 것을 빨고 어느 것을 놔둘 것인가? 친정부모를 뵈러 돌아간다네(晞澗晞否? 歸寧父母)”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듯 하다. 澗은 澗과 같은 뜻이다.
- 66) 이 부분은 『시경』 「소아」 중 「斯干」의 “(여자들은)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로지 음식과 술에 관한 일만 하는 것이 법도이니라(無非無儀 唯酒食是議)”에서 인용한 듯 하다.
- 67) 이 부분은 『시경』 「주남」 「采芣」의 “被之僮僮, 夙夜在公. 被之祈祈, 薄言還歸.”를 인용한 듯 하다. 이 구절에서는 被를 머리 장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僮은 童과 통하는데 화려하고 무성한 모양을 뜻하며 禱郗 역시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 즉 “그녀는 머리가 화려하기도 하구나. 밤낮으로 제례에 참가하네. 머리가 화려하기도 하구나. 급히 집으로 돌아가네.”로 해석한다. 이 시는 제례를 준비하는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 68) 이 구절은 『詩經』 「주남」 중 「樛木」의 “남쪽에 규목이 있네 덩굴이 그를 칭칭 감고 있네(南有樛木, 葛藟荒之)”라는 구절과 「王風」의 “綿綿葛藟(덩굴이 길게 뻗어 있네)”라는 구절에서 인용했다. 전자는 혼인 생활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후자는 가족 관계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 69) 泊은 원래 물을 붓다, 윤택하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鰾(이르다, 미치다)의 隸字이다.
- 70) 繁은 盤과 동일한 의미인데 여기서는 책을 놓는 받침을 의미하는 듯 하다. 鬘은 책을 쓰는

靜琴繼好⁷³), 誕成哲後, 徽音嗣香⁷⁴), 彰善表微⁷⁵), 亦云侈矣. 曾有詆金屏⁷⁶)之淑慎, 以牝鷄之司.⁷⁷) 毀玉帳之嘉懿, 以生蛇之妬者哉. 低徊⁷⁸)聽聞之餘, 幾有無微不信之慨, 則攷德故弗衡才實矣. 所以大聖人刪詩三百, 於婦女所作, 無論采薇捋蒹, 飛雉流泉, 卽攷童狂且之什⁷⁹), 在所不廢. 夫非才難之歎, 不其然乎. 雖然, 才亦奚貴之有, 間嘗歷攷古昔, 宮闈不具列矣. 若大家、文君、令嫺、徐淑⁸⁰), 詎不標美千載, 垂著紀傳, 而鳳泣鸞悲⁸¹), 俱傷

보자기를 의미한다.

- 71) 여기서의 共은 恭으로 해석해야 한다.
- 72) 枌榆는 원래 나무 이름이지만, 漢高祖의 고향에 있던 토지신을 제사지내는 社의 이름이기도 하다. 枌榆에서 맛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여성들이 한고조가 세웠던 社에서와 같은 제사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다.
- 73) 원래 靜琴은 전설에 나오는 琴으로, 貞山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靜木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정금은 온갖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여성들의 미덕은) 계속하여 훌륭하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안을 지킨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WWTC에서는 이 구절을 『시경』 『鄭風』의 '女曰鷄鳴'에 나오는 "은은하게 금슬을 연주하니,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곳이 없도다(琴瑟在御, 莫不靜好)"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 시는 부부간의 행복과 사랑을 노래한 시이므로 이 구절은 앞 구절에 이어 남편과의 화목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74) 이 대목은 『시경』 『大雅』의 '思齊'의 '태사께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계승하여 낳은 남자 아기는 백세를 살았네(太如嗣徽音, 則百斯男)'에서 유래하였다. 태사는 文王의 비를 말한다. 이 대목은 이러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길러서 집안의 대를 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 75) 表微은 작은 일을 분명히 밝힌다는 뜻이다. 『禮記』 『檀弓下』에서 "君子表微"라는 대목에 대해 孔穎達은 疏에서 "만약 예를 어긴 것이 미미하고 작은 일이라면, 군자만이 이를 밝혀서 드러낼 수 있다(若失禮微細, 唯君子乃能表明之)."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분명히 밝힌다는 의미이다.
- 76) WWTC에서는 金屏이 『악부시집』에 나오는 梁 健文帝의 '獨處愁'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 마지막 구절에 "只恐金屏掩, 明年已復空"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시는 떠나간 후 소식없는 남자를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금병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석대로라면 뒤에 나오는 "암탉이 새벽에 울 듯 여성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필자는 金屏이 규방을 의미하는 錦屏의 오기가 아닐까 추측한다.
- 77) 이는 암탉이 새벽을 알린다는 '牝鷄司晨'을 뜻한다. 이는 남자가 가져야 할 권력을 여자가 가졌다는 의미로 이른바 음양이 전도되어 국가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논리를 비유할 때 사용하는 성어이다.
- 78) 低徊는 徘徊하다라는 뜻과 함께 음미하면서 회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 79) 모두 시경 속 여성 화자를 내세운 시들이다. WWTC에서는 采薇는 아마 '召南'의 '采芣'을 의미하는 듯 하며 捋蒹는 '주남'의 '采芣', 飛雉는 '邶風'의 '雄雉', 流泉은 '邶풍'의 '泉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攷童은 '정풍'에 들어 있는 동명의 작품을 지칭하고 狂且는 '정풍'의 '山有扶蘇'에 나오는 명칭이다. 즉 작자는 이들 시는 모두 여자가 지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성인도 이들 시를 없애지 않았음을 구실로 하여 여성들의 시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早寡

令暉容華⁸²，不聞詰偶。蘇蕙羽仙，終爲怨婦⁸³。安仁悼亡之懷，長思翰墨⁸⁴。崑卿⁸⁵月明之夜，空聽歌辭。然則調絲⁸⁶振躡，擣石移梭，心糊錦字，目眇銀書⁸⁷，即可安榮提福，壽豈寧居，何必筆床硯匣，玳管芸箋，反令茫茫小兒，顛倒弄哉。斯知矜炫閨才，又非亟務⁸⁸者也。我內人沈宛君，夙好文章，究心風雅，與諸女題花賦草，鏤月裁雲，一時相賞，庶稱美譚⁸⁹。而長女昭齊，逾二十以鬱死⁹⁰。季女瓊章，方破瓜以仙死⁹¹。今宛君又以孝慈感悼，

80) 大家는 趙大姑, 즉 班昭를 말한다. 文君은 卓文君이다. 令嫻이란 梁 劉孝綽의 누이 劉令嫻으로 다 른 두명의 누이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徐淑이란 後漢 秦嘉의 아내로 문집 한 권을 남겼다.

81) 여기서의 鳳鸞은 才子佳人和 같은 재주있고 아름다운 남녀를 비유한다.

82) 令暉란 남조 시대 宋의 유명한 문학가인 鮑照(414-466)의 누이인 鮑令暉를 말한다. 그녀에 대해 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고 『玉臺新詠』에 시 7수가 실려 있다. 容華는 아름다운 용모를 말한 다.

83) 蘇蕙는 十六國 시기 前秦의 여시인이다. 字는 若蘭. 남편 竇滔가 趙陽臺라는 여인을 데리고 부임 지로 가려하는 것을 소혜가 거부하자 남편은 그녀와 소식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소혜는 비단 으로 『回文旋詠詩』를 지어 남편에게 보내니 남편이 감동하여 조양대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일 설에는 남편이 죄를 얻어 유배를 가자 남편을 그리워하여 시를 짜서 보냈다고도 한다. 怨婦란 남편을 잃거나 헤어진 지 오래된 여자를 말한다.

84) 安仁은 晉의 유명한 문학가 潘岳(247-300)의 字이다. 죽은 아내를 추모한 悼亡詩가 유명하다.

85) 崑卿은 아마 宋의 張溥를 말하는 듯 하나 그에 대한 자세한 사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86) 調絲은 현악기를 연주한다는 의미임. 『악부시집』 『相和歌辭』 『相逢行』에 보면 “小婦無所爲，挾瑟上高堂，丈人且安坐，調絲方未央”이라는 구절이 있다. WWTC에서는 調絲를 “비단을 직조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87) 心糊는 心湖의 오기인 듯 하다. 錦字는 비단에 짜 넣은 글자 또는 아름다운 글자를 의미하고 銀書는 은가루로 쓴 글자를 말한다.

88) 亟務란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말한다.

89) 美譚은 말 그대로 美談과 “즐거게 이야기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90) 沈소원의 아내는 여성 시인이자 편집자인 沈宜修(1590-1635)이다. 유명한 회곡가 沈璟의 조카 이기도 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詩詞에 몰두한다. 沈소 원과 결혼한 후 무려 칠남오녀의 자녀를 두고 남편과 시를 주고받으며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였다. 『오몽당집』에 들어 있는 심의수 편찬의 『聽吹』는 당시 여성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중 요한 여성시집이다. 이들의 자녀 중 위의 세 딸들이 시, 회곡 등으로 유명했다. 장녀인 純純은 字가 昭齊이다. 시와 서예에 뛰어났다. 23세에 동생 小鸞의 부음을 듣고 통곡하다 발병하여 죽 었다고 전해진다. 17세에 혼인한 이래 남편의 무관심으로 고통받았다고 한다. 그녀의 문집에 『芳雪軒遺集』이 있는데 沈소원이 『愁言』이라는 제목으로 『오몽당집』에 실었다.

91) 沈소원의 셋째 딸 小鸞의 자가 瓊章이다. 그녀는 시사에 매우 뛰어났으나 17세에 혼인을 앞두고 갑자기 죽는다. 그녀가 죽은 뒤 신선이 되어 선계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몽당집』의 『續 窈聞記』에 전해진다. 그녀에 관련된 기이한 소문은 전국에 퍼져 규방의 여성들을 이를 화제로

短算長徂⁹²⁾ 流水無歸, 彩雲去遠, 遺文在篋, 手澤⁹³⁾空悲, 珠玉停輝, 瓊瑤隕色, 甚矣! 才之累人矣. 令宛君與兩女未必才, 才未必工, 何至招殃造物, 致忌彼蒼⁹⁴⁾. 但使椎髻無文, 卽擬梁鴻之婦⁹⁵⁾. 蓬頭失禮, 居然王霸之家⁹⁶⁾. 豈不青門共隱⁹⁷⁾, 白首同期, 而琴斷徽亡, 簫殘鏡破, 生人不幸, 至於斯歟. 嗚呼傷哉, 德非上哲⁹⁸⁾, 或無愧於賢媛. 色僅中人, 敢自誇爲麗匹. 惟是謝簾雪散⁹⁹⁾, 劉匣椒摧, 中郎之絃, 無由再續¹⁰⁰⁾. 桓生之笛, 眞欲奈何¹⁰¹⁾. 孫楚

삼기도 했다고 한다. 梁貞眞은 이 일을 두고 이런 황당한 일을 퍼뜨린 것은 문인들의 附會가 너무 심한 것이다 비판한다.(『中國婦女文學史綱』, 開明書局, 1932, 368쪽) 그러나 여성 문인, 특히 젊은 나이에 요절한 여성 문인에 대한 신비화는 사실 섭소관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성 문인이 혼한 존재가 아니었던 이 시기에는 더욱이 독자들의 호기심과 상업적 목적이 결합되어 여성 작가 자신과 여성의 글을 동일시 하거나 여성 작가의 삶을 극적으로 각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92) 徂에는 죽는다는 의미도 있다. 심의수는 두 딸과 둘째 아들 世稱을 한꺼번에 잃은 후 슬픔을 이기지 못해 46세에 죽는다. 당시 유명 여성문인들의 작품을 모은 『麴吹』가 있다.
- 93) 手澤은 원래 손을 닦는 수건인데 보통 선인들이 남긴 유물이나 글을 의미하기도 한다.
- 94) 彼蒼은 『시경』중 「秦風」黃鳥에 “彼蒼者天, 矧我良人”에서 비롯되었다. 공영달은 이를 “在上之天”으로 해석한다. 후에는 하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95) 椎髻는 머리를 한 중 묶어 올린 것인데 그 모양이 망치와 비슷하다고 椎髻라 한다. 漢 梁鴻의 아내가 ‘椎髻, 着布衣’하고 양홍과 함께 은거하겠다고 하였다 한다. 여기서 비롯되어 椎髻는 아내가 현숙하여 검소한 의복을 걸치고 남편과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96) 王霸(?-59년)는 東漢의 명장으로 젊은 시절 劉秀와 함께 新的 王莽을 물리치고 동한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워 동한 초기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蓬頭失禮은 그의 아내를 지칭한 듯 보인다. 양홍과 왕패 모두 신나라에 대하여 漢에 충성한 인물이므로 이 두 구절은 “불우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뜻을 같이 하는 아내”를 의미하는 듯 싶다.
- 97) 靑門은 漢代 長安城의 東南門을 말한다. 秦의 東陵侯 召平이 진이 망한 후에 청문 밖에서 은거하며 수박을 심으며 살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靑門隱’이란 은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 98) 上哲이란 범인과 다른 도덕과 지식, 재능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 99) 謝는 東晉의 유명한 여시인 謝道韞을 말한다. 어린 시절 버들개지가 훑날리는 봄날에 숙부가 “白雪紛紛何所似”라 읊자 이를 받아 사도온이 “未若柳絮因風起”라 하였다는 이른바 ‘柳絮’고사는 『世說新語』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당시 대단히 유명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마루에 장막을 치고 얼굴을 가린채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簾雪이란 그녀에 얽힌 유명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각각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구의 劉匣椒摧란 누구의 이야기인지 명확치 않다.
- 100) WWTC에서는 中郎이 남조 시대 梁의 시인이자 관리였던 王僧孺(465-522)라고 하였다. 그가 지은 「爲姬人自傷」은 애첩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 “ 끊어진 현은 다시 이을 수 있으나 가버린 마음은 다시 붙잡기 어렵다네(斷絃猶可續, 心去最難留)”라는 대목이 있다. 續絃(絃)이란 재주를 함을 의미한다. 즉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겠으나 마음 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다는 뜻이다.
- 101) 桓生이란 東晉 시기 豫州刺史 등을 지낸 桓伊로 보인다. 그는 당시 제일가는 음악가로 이름을

情文, 徒傷心於伉儷¹⁰²⁾. 江淹夢寐, 空屑涕於嬋娟¹⁰³⁾. 可悲也夫! 崇禎丙子春王三月, 天寥
葉昭袁撰 (葉紹袁 原編 冀勤 輯校 『午夢堂集』, 1-2쪽, 中華書局, 1998)

날렸는데 특히 피리 연주가 뛰어났다고 한다. 이 대목이 지칭하는 의미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짐작된다. 『晉書』 「桓伊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환이가 궁중으로 불러들어가 피리 연주를 한 뒤 황제에게 자신이 아쟁을 타면서 노래를 해보겠다고 하였다. 황제는 처음에 궁중의 歌妓에게 피리 연주를 시켰으나 환이는 자신의 집에 있는 노비만이 가장 자신의 피리를 잘 다룰 수 있다며 그를 집에서 불러온다. 노비의 피리에 맞춰 아쟁을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바로 간신의 말만 듣고 충신들을 멀리하는 황제를 간하는 내용이었다. 그 연주와 노래가 너무나 훌륭하여 그 자리에 있던 謝安등의 대신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즉 '桓生之笛'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뛰어난 악기를 의미하며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도 이를 다룰 사람이 없다면 훌륭한 연주를 만들어 내기 힘들다는 뜻인 듯 하다. 뛰어난 아내를 잃은 자신의 무력감을 표현한 말로 보여진다.

102) 孫楚(?-238)는 西晉의 시인이다. 孫楚情文이란 그가 죽은 아내를 그리며 지은 「除婦服詩」를 말하는 듯 하다.

103) 江淹(444-505)은 남북조 시기의 유명한 시인이다. 그가 꿈 속에서 신선에게서 오색의 빛을 받은 이후로 文才가 옅어져서 크게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그래서 글의 영감과 문장력이 샘솟는 것을 가리켜 '夢筆生花'라고 지칭한다. 그 역시 죽은 아내를 가리는 「悼室人詩」10수를 지었는데 그 중 9수에 "感且增嬋娟, 屑屑涕自滋"라는 대목이 있다. 본문은 아마 이 대목을 인용한 듯 하다.